

# 광주 청소년 20명, 미 샌안토니오에서 문화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참가... 홈스테이 등 문화다양성 체험  
한인김치축제에 문화사절단 파견... 김치담그기·케이팝 공연  
자매결연 43년 굳건한 우정 다져... 청소년·문화 교류 확대



용과 학생들이 케이팝(K-pop) 공연을 선보여 현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청소년 참가자들도 축제에 참가해 광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펼친다.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는 지난 43년간 청소년·문화·산업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광주지역 청소년 20명이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를 방문, 청소년·문화 교류를 통해 43년의 굳건한 우정을 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 미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샌안토니오 청소년과 인솔자 31명이 광주를 방문한 데 이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고등학교 20명이 광주를 대표해 '청소년 민간외교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 청소년들은 또래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문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다. ▲미국 수업 수강을 통한 교육 현장 체험 ▲멕시코의 문화가 융합된 핼러윈(Halloween)과 죽은자의 날(Día de los Muertos) 등 행사 참여 ▲한국기업 OCI의 미국 본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넓힌다. 광주시는 이번 교류 기간 샌안토니오시 최대 한인축제인 'UTSA(텍사스 주립대학 샌안토니오 캠퍼스) 김치축제'에 광주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10월29일(현지 시간) 열리는 'UTSA 김치축제'에 '2023 세계김치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임란 돌담 대표가 참여해 김치 버무리기 과정을 시연하는 등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소개한다. 또 조선대학교 실용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2025년 평가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0월 21일에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평가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장기요양 전문가들과 평가 지표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지표 개선과 평가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평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평가지표 이견에 대한 논의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수급자 욕구 중심의 개별 맞춤형 급여 제공 과정, 신노년 세대의 돌봄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신설 및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고 공정한 평가로 평가 수용성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영희 본부장은 "다양한 돌봄 환경으로 인해 평가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조정이 필요하며, 평가가 단순한 등급 산정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질 개선과 기관 자율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평가운영체계의 안정적인 개편과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원 기자

## 부부의 착한동행, 서구아너스 94호·95호 탄생

서구아너스 가입 및 쌀 800만원 상당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7일 ㈜와이마트몰류 김성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아름드리 최지숙 대표가 나란히 '서구아너스(Honors)'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며 부부가 함께 마음부터 고객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두 회원은 부부로서 각각 지역 내 유통과 농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온 지역 대표 기업인이다. 이들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나눔을 일상으로 만들고, 서구 복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두 회원은 이날 서구아너스 가입과 함께 10kg짜리 쌀 200포(8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탁된 쌀은 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 등에 전달되어 울겨울 든든한 밥상이 될 예정이다. 김이강 구구청장은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의 길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에 커다란 울림이 되고,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되어 퍼져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아너스는 서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고객 기부자 모임으로, 현재까지 100여 명의 회원이 총 35억여 원



을 후원했다. '복지특새 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한 012파트너스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자립준비청년·가



##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투자유치활동 이차전지소재, 신에너지, 국제물류 분야 밀착 투자상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곤, 이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에 참가해 글로벌 한인경제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바이어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원 등 6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국내 수출기업 500여 개사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참가자들에게 광양권의 외국인투자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이차전지 소재·신에너지·국제물류 분야의 산업 경쟁력과 입주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OKT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9일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한인경제인 10여 명을 초청해 'GFZ-세계한인경제인무역협회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진도군 소속 당구 선수 김행직, 체육진흥기금 150만 원 기탁

진도군 체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진도군은 군 소속의 김행직 당구 선수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행직 선수는 지난 '진도아리랑배 3쿠션 전국당구대회'에서 진도군체육회에 체육진흥기금 150만 원을 기부하며, 진도군의 체육 인재 육성과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김행직 선수는 "진도의 체육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경기

력을 향상해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체육회 관계자는 "김행직 선수의 따뜻한 마음과 후원은 진도군의 체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행직 선수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행직 선수는 지난 10월 16일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하는 등 국내외 무대



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 발전의 든든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